

#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세션 5

앞서 언급했듯이, 유다서의 서두는 듣는 이들에게 유다가 편지를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유다서의 길이는 예를 들어 바울의 긴 편지들보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편지들의 분량과 훨씬 더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청중들은 유다가 어떤 종류의 편지를 썼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로부터 여러 종류의 편지 안내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할 편지의 종류를 정리한 목록이며, 각 유형에 대한 매우 간략한 예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들은 로마 행정부에서 전문 서기관과 서기로 훈련받는 사람들을 위해 처음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완벽한 안내서 중 두 권은 권고서, 추천서, 우호서, 견책서를 포함하여 20가지에서 40가지의 편지 유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두 핸드북 모두 특정 상황이 목표 달성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혼합형을 인정합니다. 주드는 혼합형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주요 유형은 권고형으로, 저자가 다른 행동 방침보다 특정 행동 방침을 권고하거나 수신자에게 특정 행동 방침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즉, 그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고 심판 날에 바라는 자비를 바라보며, 서로 돕고, 그들 가운데 끼어든 사기꾼들의 유혹과 본보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유다서에는 또한 누군가의 성격의 악함이나 누군가에 대한 그의 행동의 불쾌함을 폭로하는 비난의 편지나 책망의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언적인 목적보다 이러한 목적에 더 많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유다서에서 비난이나 책망은 부차적인 것이며, 회중이 침입자의 행위와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도들이 정해 놓은 길을 굳건히 따라가도록 설득하는 주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서신뿐만 아니라 고전 수사학에도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조언적 서신과 비난적 서신 유형, 그리고 그 반대 유형인 단념적 서신과 칭찬적 서신 유형, 그리고 세 가지 주요 웅변 유형 중 두 가지인 심의적 웅변과 표명적 웅변 유형 사이에 자연스럽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의적 웅변은 특정 상황이나 기회에 대응하여 집단이 특정 행동 방침을 채택하거나 특정 행동 방침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표명적 웅변은 더 광범위했지만, 어떤 사람, 속성 또는 대상을 칭찬할 만하고 따라서 명예롭거나 비난받을 만하고 따라서 부끄러운 것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웅변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약성서 서신에 대한 수사학적 분석을 주저해 온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더욱 과격한 수사학 비평가들이 모든 문서를 서신 내용 전개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반하는 고전적인 연설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경향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서신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 방침이든 그 행동 방침을 피하도록 설득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주제와 주장 수준에서 심의 전략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의 인품을 칭찬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사적 전략과 주제를 주저 없이 활용할 것입니다.

연설 장르가 매우 겹치기 때문에, 유다의 전략과 그 편지가 가져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있어 고전적인 수사학 이론이나 설득의 가능한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편지처럼 서신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행 계획, 마무리 인사, 작별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고, 오히려 송영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예배 모임에서 모인 회중에게 큰 소리로 낭독되는 서신의 전달 방식을 고려하면 적절한 마무리입니다.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중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 너머에는 비기독교적 실천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을 부정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실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수호하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그 경계를 넘어서는 실천이 더 이상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개인적으로 인도받는다라는 새로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점진적인 충동과, 단번에 전해진, 즉 과거 어느 시점에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전해진 신앙에 헌신하는 계시 종교의 보수적인 본질 사이의 긴장 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정경 성경에 의해 양육되고 제한받는다 믿습니다.

유다가 선포하는 또 다른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는 궤적에 관한 것입니다. 침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허가로, 오히려 육신의 욕망의 권세를 넘어 살 수 있는 기회와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유다는 이에 반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 날에 사람들이 흠 없는 길로 나아가도록 의도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자비를 얻고 부끄러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로 그들의 행동, 태도, 그리고 예상되는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고려하며 변론을 시작합니다. 유다는 그들의 확실한 결말을 예로 들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들은 여러 면에서 설득의 기술에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에 특정 행동 방침을 따르거나 피하라고 조언할 때, 과거에 취해진 유사한 행동 방침의 결과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명예로운지 불명예스러운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화자는 흔히 그 인물을 과거의 인물과 비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인물과의 유사점은 화자의 발언 대상인 인물 또한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 발언의 주제 또한 수치스럽다고 여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는 5절에서 7절까지 일련의 예를 제시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정죄를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정죄의 극적인 본질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이러한 예들을 침입자들에게 적용하며, 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정죄를 경험했던 자들과 동일한 특성과 행실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9절에서 세 번째 예를 제시하는데, 이는 침입자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구조는 유다가 단순히 신성한 역사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침입자들을 해석하는 데 빛을 비추고 청중이 역사의 교훈과 현재 순간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관심을 강조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그는 출애굽 세대, 반역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의 주민들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8절에서 그는 이 자료를 이 사람들, 즉 침입자들과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천사 미가엘이 사탄과 논쟁하는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는 다시 이 예를 이 사람들, 즉 침입자들과 연관시킵니다.

유다는 5절과 17절에서 18절에서 자신이 제시하는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는 그의 청중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는 길에 대한 믿음직한 관점으로 이미 받아들였던 유산과 교훈의 일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유다가 자신들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단지 그들이 그 지식을 유익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는 먼저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운명적인 사건들을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재앙과 기적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년 동안 물과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신 히브리인 세대가 이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백성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낼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파견되어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중 열 명은 그 땅 주민들이 거대하고 강하며, 성읍은 매우 견고하여 히브리인들이 침입하여 점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합니다.

정탐꾼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이 아름답고, 그 소산이 풍부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대다수의 보고를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부 아래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와 협상하여, 비록 억압받았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가 자신에게 가한 도발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일, 특히 홍해에서의 기적적인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수 없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악의적인 행위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친절에 대한 이 노골적인 모욕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한 모든 히브리인은 실제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세대는 그 운명의 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던 마지막 성인이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방황하는 운명을 선고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사건을 같은 목적, 즉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경험하기 위해 순종과 신실함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 유다는 천사들이 인간 여성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그들과 교미하여 거인족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더 거슬러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짧은 이야기는 기원전 3세기와 2세기에 걸쳐 상당한 확장 해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에녹서 6장부터 22장까지와 유빌리서 5장이 증명합니다. 에녹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더 완전한 버전에 따르면, 이 천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항했으며, 하늘에 주둔하여 필멸의 인간 여성들과 교미하도록 정해진 불멸의 존재로서의 중요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끝없는 욕망으로 지구 인류를 파괴하는 거인 종족을 낳습니다. 동시에, 이 반역 천사들은 인류에게 온갖 해롭고 금지된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땅에서 금속을 채굴하는 기술을 가르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은과 금을 발견하고 탐욕과 탐욕을 깨닫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서로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천사들은 인간 여성들에게 화장과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미래의 배우자의 욕망을 더욱 쉽게 충족시키도록 합니다. 신은 지상에 닥친 혼돈 때문에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신은 천사들과 그들의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거인들을 죽이고, 거인들의 죽은 영혼은 악마가 되어 인류를 계속 괴롭힙니다.

천사들은 땅속 깊은 동굴에 쇠사슬로 묶이고 갇혀 있으며, 바위로 뒤덮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실 날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특히 창세기 6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세부 사항, 즉 이 천사들이 땅속 어두운 동굴에 쇠사슬로 묶인 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신들에 대한 티탄족의 반란과 그들이 땅속 깊은 동굴에 갇힌 것과 같은 형벌을 겪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 저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세계의 악하고 혼돈스러운 질서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에스라 4서의 저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외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다른 여러 유대인 저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는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7절에서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자매 도시들의 운명을 상기시킵니다. 이 도시들은 유대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독특한 운명을 겪었고, 그 지역이 천 년 넘게 유향과 연기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해집니다. 유다는 소돔 주민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종류의 육체를 좇았다고 비난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과 40절에서 육체와 부활의 몸을 대조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는 유다가 소돔의 죄를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예복서 1장 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죄와 유사한, 천사 사자들을 강간하려는 구체적인 욕망으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유다는 소돔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고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는 삶과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을 때 초래될 끔찍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그는 침입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사례는 벤 시라의 지혜서 16장 7절에서 10절에도 나타나며, 마카베오서 3장 2절에서 출애굽 세대의 반역을 파라오의 오만으로 대체하는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덕적인 목적으로 흔히 인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유다는 이어서 침입자들을 이러한 전통의 틀에 확고히 위치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을 꾸며 돌아다니면서 육신을 더럽히고 권위를 무시하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이 교사들이 꿈을 꾸었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유다가 방금 언급한 어떤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이는 침입자들의 관찰 가능하고 특징적인 관행을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교회는 영적 영감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목격했는데, 그중 다수는 진실했지만, 일부는 매우 위선적이었습니다.

침입자들은 카리스마적 경험을 자신들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어찌면 연출하기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천과 가르침을 정당화한 것으로 보인다. 유다는 여기서 '최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스어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zdomenoi'라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신명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할 때, 자신이 경고하는 침입자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된 동사를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유다는 매우 암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명백히 성적인 함의를 지닌 침입자들의 방종을 가리킵니다. 지배권을 제쳐두는 것, 혹은 어찌면, 권위를 제쳐두는 것, 혹은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은 침입자들이 방종과 방탕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또한

개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방종과 방탕을 위한 여지를 만드는 기회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영광을 비방하는 것, 즉 여기서 천사의 계급이나 천사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영광은 가장 불분명합니다. 1세기 천사와 율법의 제정, 최후의 심판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유다는 침입자들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의 도덕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서처럼 초기 교회에서도 천사 숭배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영적 지식이나 능력으로 영적 존재에 대한 권위를 누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주술적 행위와 엑소시즘의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이 대중을 착취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있던 마술사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침입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심지어 영적인 존재들에게 담대한 말을 함으로써 회중의 도덕적 지침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강화하려 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은사주의 영성의 더욱 과도한 표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다가 9절에서 제시하는 반례에서 시사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해 고발자와 변론할 때, 감히 욕설을 퍼붓지 않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자신에게는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이 편지가 생소함을 상기시켜 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유다가 9절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밝혀줄 만한 제2성전 시대의 기록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유언으로 알려진 책의 첫 장들은 남아 있지만, 결말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모세의 죽음과 아마도 장례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내용은 소실되었습니다.

모세의 승천(The Assumption of Moses)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또 다른 작품이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후대 문헌에 보존된 짧고 무관한 발췌문 외에는 그 어떤 부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유다가 언급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어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장지의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의 매장지 위치와 같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인간에 의해 매장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 매장되었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천사들은 그 위치를 인간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이 전설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미가엘에게 누가 더 합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아니면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이유로 사탄에게 누가 더 합당한 권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유다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물론 미가엘의 주장이 승리했지만, 미가엘은 아무리 타락한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로 사탄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돌림으로써 적절한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에게 한 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는 말은 사실 더 오래된 성경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인간을 두고 마귀와 천사가 벌인 또 다른 논쟁입니다. 스가랴 3장 1-6절에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 유배 이후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도구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천사는 바로 이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그의 더러운 옷이 벗겨 지고 깨끗한 흰 옷이 그의 몸에 걸쳐지며 대제사장직의 터번이 그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다서와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유다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8세기 초, 존경받는 베다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모세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다른 초기 익명의 해석자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과 연관시켰는데, 사탄과 미가엘은 모세가 다볼 산, 즉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약속의 땅에 나타난 것의 타당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베드로후서 저자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다서의 많은 부분을 다른 종류의 침입자에 대한 경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하고 유대 경전에서 더 잘 알려진 일화로 대체했습니다. 유다는 10절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다시 한번 침입자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이성 없는 동물처럼,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타락합니다. 유다는 교묘한 비난을 퍼붓듯, 침입자들의 카리스마적인 허세는 진정한 영적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반면, 그들의 감각적 행위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동물들과 공유하는 종류의 지식, 즉 갈망과 본능에서 비롯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바로 바울이 육체에 썩음과 부패를 심어 무덤에서 썩게 하는 길의 끝에 있다고 단언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한번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행사해야 할 자유에 대해 더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이 정해 놓은 경계라고 여겨 온 것들이 낡아버린 현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충만한 인간적 삶에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누리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만들고, 본능적인 욕망이 의사 결정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되는 비이성적인 동물처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도적 전통의 권위를 저버림으로써, 우리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중요한 측면, 즉 궁극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스스로에게서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벗어나 많은 비전문가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부분, 즉 본문 비평과 신약 성경의 가장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분별하는 복잡한 작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어떤 1세기 원본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수천 개의 신약 성경 사본으로, 원본을 그대로 옮겨온 사본의 사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수많은 사본들 사이의 문구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는 드물지만, 때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특정 구절마다 이렇게 많은 사본에 걸쳐 단어의 차이, 즉 본문 이문(textual variants)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문은 필사자들, 즉 각 신약 본문과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새롭게 사본을 만드는 임무를 맡은 서기관들의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단어의 차이 중 일부는 우연한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일부는 의도적인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서기관이 낱아빠진 원고를 교체하거나 다른 회중을 위해 사본을 만들 때, 필사자는 필연적으로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주로 눈속임이었습니다. 필사자는 철자 오류를 범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를 혼동하거나, 단어의 철자를 바꾸거나, 문장의 단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필사자의 시선이 원본에서 사본으로, 그리고 다시 사본으로 옮겨가면서, 시선이 정확히 같은 곳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원고에서 방금 베껴 쓰고 있던 글자와 같은 글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다른 단어로 앞뒤로 이동해서 단어나 구를 건너뛰거나 중복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필사자가 원고를 받아 적는 동안 한 필사자가 원고를 소리 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필사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특히 그리스어 모음과 이중모음의 발음이 점점 더 비슷해짐에 따라 텍스트를 잘못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필사자들은 필사하면서 의도적으로 텍스트를 수정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매우 흔한 교정 방법 중 하나는 한 구절의 표현을 다른 구절에서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 내용과 조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들은 신약에서 구약 인용문을 교정하거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초기 교회의 주요 복음서였던 마태복음과 더욱 조화시켰습니다. 또는 바울 서신의 표현을 다른 서신의 표현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두 개 이상의 사본을 비교하면서 필사하는 필사자가 이문들을 조화시켜 하나의 새로운 필사본으로 합치기도 했습니다. 필사자들은 또한 본문의 문법과 문체를 개선하거나, 발견된 오류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신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생략, 변경, 또는 삽입을 하기도 했는데, 그중 일부는 처음에는 난외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본문 자체의 일부로 필사되었습니다.

본문 이문의 존재는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본문 비평은 수많은 이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원본 문구를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학문입니다. 본문 비평은 본문의 특정 위치에 있는 모든 이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독해가 본문의 원본 독해, 즉 저자의 원본

독해와 가장 유사한지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본들은 다른 사본들보다 원본에서 훨씬 적은 세대를 거쳐 복사되었습니다 .

중요한 초기 사본에는 서기 4세기와 5세기에 쓰인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세권의 성경이 포함됩니다.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 둘 다 4세기),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5세기)입니다. 이들 과 함께 우리는 신약 성경 일부의 3세기와 4세기 파피루스 사본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피루스 번호 66은 서기 200년경에 쓰인 바울 서신 사본을 보여줍니다. 본문 비평가들은 종종 이러한 초기 사본의 증거를 후기 사본인 10세기, 11세기, 12세기 사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이러한 사본들이 신약 성경 필자들의 시대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비평가들은 필사자들이 주석이나 조화를 통해 본문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본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사자들이 본문의 어려움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본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지리적 근거를 가진 특정 본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팔레스타인, 그리스 사본에 모두 등장하는 경우, 이 세 곳 모두에서 발견된 본문은 이탈리아 사본이나 서방 사본에서만 발견된 본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5절은 이 짧은 글에서 두 가지 주요 본문 비평적 난제 중 첫 번째를 제시합니다. 이 변이체들은 해당 변이체가 등장하는 매우 초기 사본들과 연관 지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사본에서 유다서 5절에 나타나는 표현 방식에는 두 가지 주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사용한 그리스어 부사 '하팍스(hapax)'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사를 단번에, 혹은 단호하게 번역합니다. 저자는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청중이 그리스도교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하팍스'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애굽 세대에게 먼저 일어난 일과 그 후, 그들이 신실함과 순종에 실패한 후에 일어난 일을 비교하기 위해 '하팍스'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저자가 출애굽 세대를 이집트에서 구출한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지, 즉 주님,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께 돌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들의 증언들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증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세기의 시나이 사본은 계속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후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곳에서 바티칸 사본 과 알렉산드리아 사본 모두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후 두 번째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 후반이나 4세기 초의 파피루스 72번 파피루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단번에 알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 두 번째로 불신앙을 보이는 자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짚어보면, 누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공로를 인정받는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알렉산드리아와 바티칸 사본뿐 아니라 고대 라틴어, 콥트어, 에티오피아어 등 여러 초기 번역본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본들은 이 본문이 2세기 후반이나 3세기 초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이 변형어에 광범위한 지역적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이 변형어는 또한 더 까다로운 해석일 수 있으며, 필사자들이 사소한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성육신한 아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는 예수에서, 성육신하기 전의 아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리스도, 또는 더 모호한 용어인 주를 지칭하는 그리스도로 바뀌는 경우, 역사적으로 출애굽의 더 잘 입증된 주체인 성부 하나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이 짧은 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존칭, 즉 메시아라는 칭호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가 서기관본문의 침해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원래 명칭이 '주'였다면, 다른 변형들은 유다가 이 모호한 칭호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더 명확하게 밝히려는 시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일부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성육신 이전의 예수에게 하나님 백성의 초기 구원 역사에서의 역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네 번째 복음서 저자가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 창세기의 사건, 즉 창조에서 활동했다고 여긴 것과 같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물을 끓는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이름 지었을 때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행에 대해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증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다서 5절의 맥락에 근거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신학적 결론에 대해 우리는 주저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과 관련하여, 수신자의 신앙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하여 hapax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해석인 듯합니다. 이 주장은 3세기 초 파피루스 72, 4세기 바티칸 사본, 5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수 세기 후 시나이 사본을 수정한 필사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계시된 지식에 기독교 공동체가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다른 신약 성경 구절들과 일맥상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회중에게 이전의 신앙과 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던 길을 굳건히 지키도록 촉구하는 맥락에서도 사용됩니다.

하팍스를 히브리인들의 구원 경험과 연결하는 것은 문체적 수정으로 보이며, 그들의 이전 구원 경험인 하팍스와,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후속작인 신명기하서 사이에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가 이 문제를 길게 다룬 이유는 신약성서 본문을 면밀히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읽는 본문의 이면에 있는 본문 비평의 복잡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제로

잃어버린 원본의 정확한 문구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유다는 자신과 독자들이 공유하는 전통에 호소하며, 침입자들의 본보기를 따르고 그들의 조건에 동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적 사례와 준성경적 본문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행위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는 에녹서입니다. 유다는 반역한 천사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이는 유다서 6절의 성경 이야기 자체보다는 에녹서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확장한 내용을 통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유다는 에녹서 1장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권위 있는 선언으로 직접 인용할 것입니다. 교부 시대와 니케아 이후 시대의 유다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현대 유다서 독자들은 에녹서 1장에 익숙하지 않거나 가명으로 쓰인 책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에녹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 자체는 최소 2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했는데,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책으로 계속 돌아와 그 전통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저술하고, 자신들의 자료를 이 책에 결합하여 보존을 보장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향력과 인식의 흐름을 시사합니다. 에녹서의 가장 초기 핵심은 기원전 3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녹서 91장과 93장에 나오는 칠칠절 묵시록과 에녹서 6장부터 36장까지의 감시자들의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급한 것은 파수꾼의 책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녹서 1서 10장 4절과 10장 13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사셀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둠 속에 던져라. 심판의 날까지 70대 동안 그들을 땅의 바위 아래에 묶어 두어라.

그리고 다시, 모든 반역 천사 무리를 포괄하여, 이곳은 천사들의 감옥이며, 그들은 그곳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13절에서 침입자들을 가리켜 "떠도는 별들, 곧 가장 깊은 어둠이 영원히 예비된 자들"이라고 칭한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녹서 1서 18장에서도 이곳이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언급합니다.

절에서 이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긴 하늘의 별들 중 하나로, 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에녹서 1장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겹의 다른 층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광명체에 관한 책인 에녹서 1장 72-82절은 해와 달이 지평선의 여러 문을 통해 떠오르고 지는 모습과 이것이 유대교 전례력의 달력 준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에녹서 1장의 각 부분보다 훨씬 더 긴 원래 천문학 서적의 요약본일 수도 있습니다. 양력은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364일로 나눕니다. 음력은 같은 12개월을 354일로 나누고 3년마다 한 달을 더하여 차이를 메웁니다.

따라서 토라와 모세 율법에 기록된 특정 월의 특정 요일에 시작되는 정해진 연례 축제들, 즉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새해, 그리고 속죄일은 모두 어떤 달력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른 날짜에 해당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와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자들은 음력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콤란의 종파 공동체는 태양력을 따랐고, 성전 당국이 축제 등의 적절한 시간을 계산할 때 큰 빛인 태양이 아닌 작은 빛인 달을 따랐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콤란의 종파주의자들은 성전 당국이 정해진 날에 축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녹서 1장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의 환상서는 에녹서 1장 83-9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담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비유한 장대한 동물 종말론으로, 기원전 2세기 중반 마카비 시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에녹서(1에녹 91-107)에는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에 쓰인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은 주로 윤리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비유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에녹서 1장 37-7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원전 1세기에 쓰였는지, 아니면 서기 1세기에 쓰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원전 1세기에 쓰였다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종말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께서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역할을 지칭하는 데 가장 즐겨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에녹서 1장의 모든 부분은 에녹의 비유를 제외한 사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에녹서가 그 책에 등장하는 종파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였는가를 증명합니다. 이는 또한 왜 비유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기 68년에 파괴될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기에 이 책들이 너무 늦게 편찬되었을까요? 어쨌든 유다 자신은 팔레스타인에서 이 비유적 책, 특히 에녹서 1서로 알려진 서적집의 서두에 나오는 감시자들의 책을 높이 평가하는 세력을 형성했음이 분명합니다. 11절에서 유다는 침입자들의 성격과 관습을 고찰하기 위한 틀로서 성경 유산에서 세 가지 사례를 더 언급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익을 위해 발람의 후손에게 몸을 내맡겼으며,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하였음이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야기는 물론 꽤 익숙합니다. 제2성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한 추측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제공하는 유일한 단서는 이 사건이 침입자들과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감정에 굴복하기보다는 감정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함은 어찌 하며, 안색은 어찌하여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느니라. 죄의 욕망은 너를 향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유다는 4절과 8절에서 침입자들이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기보다는 만족시키려는 의지를 이미 암시했습니다. 그는 곧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 이러한 비난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물론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로마와 헬레니즘 유대 윤리에서 흔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윤리적 우선순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5절이 특히 강조하듯이, 바울은 바로 그러한 우선순위를 지녔습니다. 유다가 다음으로 예로 든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자기 땅에 접근하여 지나갈 때 그들을 저주하도록 부른, 고용된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은 당연히 당나귀가 길에서 앞서 가는 천사에 대해 경고하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돈을 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의 제안에 따라 모압 여인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유혹하여 모압 신들을 숭배하도록 이끌었고, 이는 이스라엘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토착민들과 융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읽지만, 발람의 개입에 대해서는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유다가 염두에 둔 침입자들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들이 관능미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거룩함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람처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많은 회중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유다는 단언합니다.

세 번째 예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그의 일족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대하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하며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거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라의 목표는 자신과 그의 일족을 위해 더 큰 권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최후는 지진으로 인해 극적으로 삼켜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 일족과 거리를 두려고 애썼습니다.

후자는 유다가 청중들이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침입자들을 대해 행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 적어도 침입자들 역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연관성은 고라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침입자들은 자신들의 카리스마적이고 예언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사도적 가르침과 전통의 구속력 있는 권위를 무시하려는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역사 속 인물들과의 이러한 비교는 자연과 산업의 이미지들과의 수많은 비교로 이어지지만, 이 중 대부분은 성경적 또는 준경전적 의미에서도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적 비유처럼, 자연 의 이미지들은 결코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사랑의

관치에 숨겨진 암초이며, 당신 곁에서 무례하게 흥청거리고, 바람에 실려 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스스로를 돌보는 목자 들이며 , 늦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며, 뿌리째 뽑힌 두 번 죽은 바다의 거친 길에서 제 수치를 휘저으며, 어둠의 어둠 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방황하는 별들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는 침입자들을 회중의 애찬에 흠이나 티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숨겨진 암초라고 부릅니까? 후자가 스피라데스(spilades) 의 더 일반적인 의미인 듯하며 , 베드로후서 저자는 흠이나 티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숨겨진 암초나 숨겨진 바위의 이미지는 난파가 혼한 세상 에서 특히 가슴 뭉클한 이미지입니다 .

바울이 몰타 섬에 상륙하기 전, 적어도 세 번의 난파를 겪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미지는 침입자들이 유다의 청중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침입자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고 피하는 회중 성원들의 믿음을 파탄으로 몰아넣습니다.

유다는 침입자들이 에스겔이 묘사한 이스라엘 목자들의 대열에 서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로 자처하지만, 책임 있는 자들, 즉 자기 이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합니다. 기독교 사랑의 만찬(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함께 이끈 가족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만찬)에서 침입자 들이 자기만족에 빠져드는 모습은 그들의 본질적인 불경함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친교 만찬이 기념하는 동시에 회중의 함께하는 경험을 위해 제공하고자 했던 더 고귀한 가치들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미지는 성경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히브리어 본문 전통과 공명하며, 이러한 이미지의 강렬함은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 없는 구름이 바람에 실려 가는 것은 잠언 25-14장에 나오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 이미지는 사람들이 베푸는 적도 없고 실제로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명예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물 없는 구름처럼 침입자들도 허풍과 허세로 가득 차 자신의 명예를 부풀리려 하지만 영양분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 가을에 나무는 열매가 무성해야 하지만 이 침입자들은 열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사실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자양분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 죽은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유다가 열매를 맺는 나무, 심지어 늦은 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가 두 번이나 뽑혀 죽은 나무에 대한 자신의 그림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묘사한 의로운 사람의 이미지와 대조되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악인들을, 쉬지 못하고 파도가 진흙과 진창을 일으키는 요동하는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침입자들의 방종한 행위가 그들 자신의 타락이라는 진흙을 떠올리게 한다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별들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유다는 여기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불규칙한 경로로 움직이는 행성들(planeti)을 언급하는데, 이 행성들은 그 자체의 불규칙성 때문에 신뢰할 만한 향해 지점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론, 교사들의 영향력에 맞서 싸울 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교사들의 메시지와 모범은 그들에 의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유다는 또한 에녹 1서 6장부터 26장까지 언급되는 타락한 별들, 즉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지 않아 땅 속 어두운 동굴 감옥에서 형벌을 받은 반역 천사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에녹서 1장에 대한 새로운 암시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침입자와 그들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고 아래 확실히 서 있다는 경고로서 그 본문을 낭송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또한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세대인 에녹이 예언한 것도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만 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말한 모든 가혹한 말에 대하여 각 사람을 정죄하시리라. 에녹서 1장 9-10절의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는 만 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고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분을 거슬러 행하고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육체를 상대로 논쟁하시리라.

유다가 원문의 '주님이 오셨다'가 아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여 '주님이 오셨다'로 인용문을 시작하는 것은 다소 이상합니다. 이는 듣는 이들에게 홍수에 휩쓸린 감시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에녹의 관점에서는 아직 미래지만, 듣는 이의 관점에서는 먼 과거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역사적 선례를 인용하는 듯한 효과를 내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듣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유다는 에녹이 침입자들에게, 또는 침입자들에 대해 이 말을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녹의 과거와 독자의 현재라는 지평을 하나로 합칩니다. 또한 이 침입자들을 어둠의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방황하는 별들로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지평의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홍수에 휩쓸려 간 감시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의 운명은 침입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의도를 존중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그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만족을 얻기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를 제시하며, 우리는 자신을 보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또한 21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잊고 무시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부정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한 측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마땅히 드러야 할 경건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사는 자들의 삶을 특징짓는 마땅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는 단지 그의 이복형제이자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냉정한 자와 자비로운 자를, 거룩한 마음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와 자신의 쾌락과 목적을 위해 사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듣는 이들에게 그들이 유다가 여러 차례 그렇게 불렀던 사람뿐 아니라, 서두에서 묘사했듯이 그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에게서 더욱 사랑받고 있으며, 21 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권고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은 거룩함 안에서 행하고 사도들이 자신들을 초대했던 믿음을 보존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소리처럼, 거룩함과 사랑은 상충되는 특성이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정의하고 강화하는 관계입니다.